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10월 31일

**CUOMO 주지사, 음료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HUDSON VALLE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이 TASTE NY과 제휴하여 개최하는 지역 맥주, 포도주, 증류주 서밋 발표**

*이 서밋은 음료 산업과 현지에서 생산된 맥주, 포도주, 과일주, 증류주를 지원합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Hudson Valle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HVEDC)이 Taste NY과 제휴하여 지역 음료 산업을 뒷받침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맥주, 포도주, 과일주, 증류주의 판매와 관광업을 진흥하기 위한 제1회 지역 맥주, 포도주, 증류주 서밋을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에서 개최하였다고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Hudson Valley 전역에서 200여명의 업계 대표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지난 10월에 개최된 Cuomo 지사의 전주 서밋 후에 HVEDC의 Food & Beverage Alliance가 Hudson Valley 지역의 업계가 당면한 도전과 성장 기회에 초점을 맞춘 원탁 토의를 조직한 것입니다.

“뉴욕주의 포도주, 맥주, 증류주 산업은 이제 이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밋 같은 행사들은 그 전진을 지속시키는 관건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개최한 전주적 포도주, 맥주, 증류주 서밋처럼 오늘의 행사도 이 중요한 부문의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Hudson Valley 전역에서 생산자, 커뮤니티 리더 및 경제개발 관리들을 불러모았습니다. Taste NY 같은 우리의 이니셔티브와 함께 이러한 노력은 이 산업의 기세를 높이고 뉴욕주의 식품이 전세계에서 최고에 속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참석한 주정부 관리, 경제 개발 리더 및 업계 대표들은 Taste NY 캠페인, 음료 트레일 확장, 주의 새로운 One-Stop Shop에 대한 정보와 뉴욕주 주류 규제 및 지역 포도주 업계에 대한 현황을 제공하였습니다.

“Hudson Valle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과 Hudson Valley Food & Beverage Alliance는 관측을 위한 새로운 Taste NY 캠페인을 창설한 주정부에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Hudson Valle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의 사장 겸 CEO인 Laurence P. Gottlieb가 말했습니다. “Taste NY은 우리 Food & Beverage Alliance 회원들과 우리 지역의 식품 음료 산업 종사자들이 생산하는 우수한 품목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Korean

Hudson Valle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의 Food & Beverage Alliance는 이미 번창한 음료 산업을 Hudson Valley를 위해 더욱 더 큰 섹터로 성장시킬 방법을 토의하기 위해 이 서밋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자금 기회를 포함한 업체별 니즈, 주 및 연방 수준에서의 산업 정책, 인력 훈련 및 교육 계획, 용자 및 교부금 프로그램을 통한 자본 활용 및 인맥 형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지사님의 리더십과 뉴욕주의 포도주, 맥주, 증류주 서밋 같은 행사 덕분에 음료 산업은 주 전역에서 엄청난 붐을 맞이하였습니다”라고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CEO 겸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는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Taste NY 캠페인을 통해 HVEDC 포도주, 맥주, 증류주 서밋 같은 지역 행사를 공동개최하여 이 기세를 지속시키고, 이 부문을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며, Hudson Valley 음료 회사들의 다양성을 진작시켜서 기쁩니다.”

“종종 가족 소유의 소규모 기업인 뉴욕주의 크래프트 맥주 제조업체들은 지사님의 리더십 아래 지난 3년 동안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라고 뉴욕주 주류청장 Dennis Rosen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업체들이 뉴욕주 전역에서 계속 일자리를 창출하고 친환경적 경제 발전에도 포함에 따라 이들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오늘의 서밋에 참석하여 기쁩니다.”

“뉴욕주의 음료 산업이 지속 성장함에 따라 뉴욕주의 농업도 함께 성장합니다”라고 James B. Bays 농업장관 대리가 말했습니다. “이 서밋은 참가자들을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위치, Cuomo 지사의 리더십 아래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로부터 우리가 향해 가고 있는 위치로 안내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많은 것을 하였기 때문에 이 급성장하는 산업의 미래는 매우 밝아 보입니다.”

Cuomo 지사는 취임 이래 뉴욕주 전역의 커뮤니티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개발의 주요 동력인 이 음료 산업을 더욱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북부 뉴욕주의 농장 및 농기업은 이 산업의 성장에서 핵심 기여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주에서 생산된 포도주, 맥주, 과일주 및 증류주의 판매와 관광을 진흥하기 위한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과 음료 생산업체의 비즈니스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일련의 규제 개혁을 발표하였던 뉴욕주 사상 최초의 포도주, 맥주, 증류주 서밋을 2012년 10월에 개최한 이외에 주지사는 뉴욕주 제품 마케팅을 개선하기 위해 Taste NY 같은 여러 새로운 캠페인도 도입하였습니다. 뉴욕주의 농장 양조장 면허 및 최근 통과된 농장 과일주 법안 등 주지사의 혁신적 정책 변화도 뉴욕주의 이 중요한 산업을 성장, 확대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약 520개의 포도주 양조장, 맥주 양조장, 증류주 양조장, 과일주 양조장의 본거지입니다. 생산업체에서 뉴욕주에 미치는 연간 총 경제적 영향은 약 220억 달러 이상에 달하며, 수많은 일자리가 주 전역에 걸쳐 창출됩니다. 뉴욕주는 전국 3위의 와인 및 포도 생산 지역이고, 2번째로 중요한 증류주 생산지이며, 미국의 상위 20개 양조업체 중 3곳이 뉴욕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Taste NY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taste.ny.gov](http://www.taste.ny.gov)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